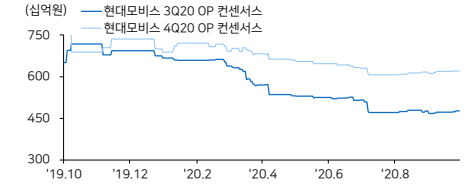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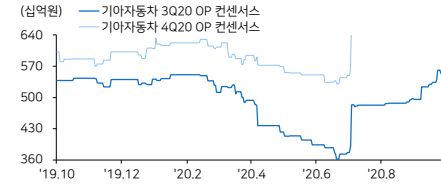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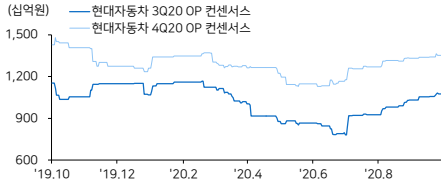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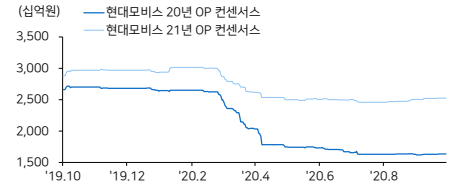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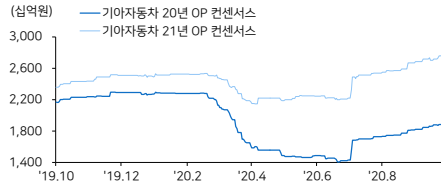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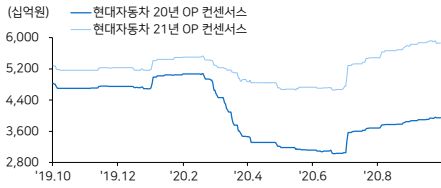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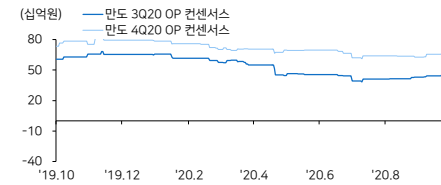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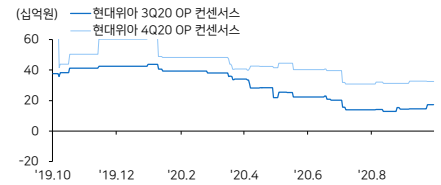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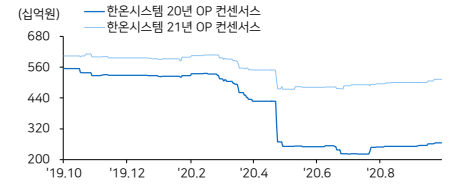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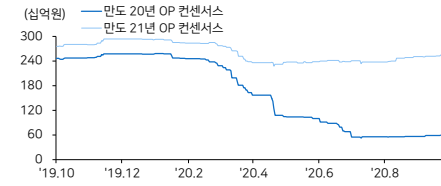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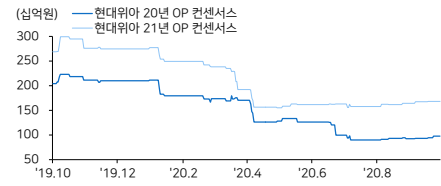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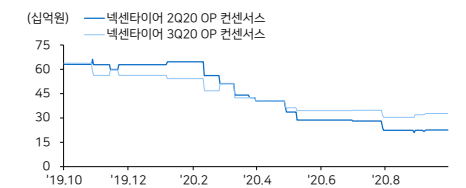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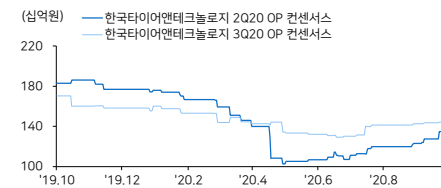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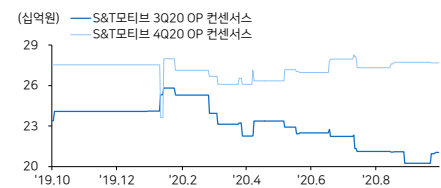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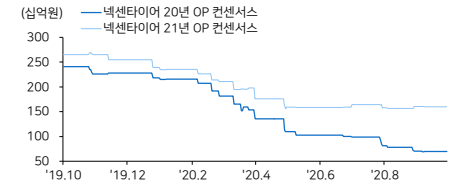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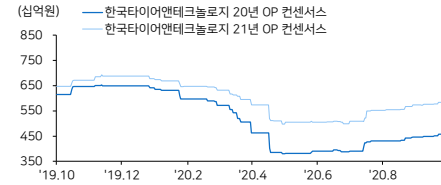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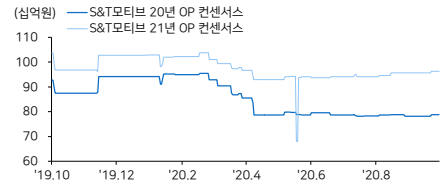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정의선의 '빅 배스'...현대차, 총당금 3조4000억원 3분기 실적에 반영 (중앙일보)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 리콜 등과 관련해 3조3900억원의 총당금을 3분기 실적에 반영하기로 함. 정의선 회장 체제 시작 단계, 그리고 전기차 원년인 내년이 오기 전 적자를 털고 가겠다는 '빅 배스(Big Bath)' 전략으로 풀이됨.
<https://bit.ly/3jdWP15>

현대차, 모빌리티 인제 수백명 뽑는다 (파이낸셜뉴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후 첫 내부 활동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인재 확보에 나선. 19일 현대차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개발본부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밝힘.
<https://bit.ly/3lUJ11M>

기아차 '니로 EV'도 화재 한 현대차 '코나'와 같은 배터리 장착 (한국일보)

기아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생산한 니로 EV 4,000여대에 LG화학 배터리를 장착. 니로 EV는 당초 SK 이노베이션의 셀이 장착됨. 하지만 당시 배터리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차량에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감.
<https://bit.ly/2Hev315>

9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두자릿수 성장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충격 속에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두자릿수 증가. 올 3월 이후 6개월 만. 친환경차 내수판매 비중이 15.0%로 역대 최대였다. 4·4분기 자동차 시장 회복세가 지속될 지 주목됨.
<https://bit.ly/31ov5UD>

전기차 배터리 ESS로 재활용...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차 추진 (이데일리)

전기차에 쓰였던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길이 열림.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에 정부가 실증 특례를 부여함.
<https://bit.ly/35gwhK0>

현대차, 중국 텐센트와 스마트 모빌리티 업무 협약 (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의 중국혁신센터인 '현대 크래들 베이징'이 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와 손잡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과 현지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
<https://bit.ly/37osazc>

한국타이어, 프리미엄 OE 공급 확대로 코로나19 위기 타개 (CEO스코어데일리)

한국타이어는 자동차시장이 봉착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립할 계획.
<https://bit.ly/3deYhjX>

*테슬라, 중국산 모델3 유럽에 수출 (초이스경제)

테슬라가 당초 방침과 달리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3를 유럽에 수출한다고 외신이 보도. 미국의 전기차동자 전문매체 일렉트릭은 18일(미국시간) 이같이 보도.
<https://bit.ly/3kdalXr>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